

강의 영상과 함께 교안을 보세요(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s://youtu.be/2RyhPHNNGFo>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삼상4:12-18)

1. 오늘날 주변을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풍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지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2. 본문에 보면, 제사장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몰락하게 됩니다.

질문1) 제사장 엘리는 나름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상2:29)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

(삼상2:17)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질문2) 제사장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는 무엇이며,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한 날에 죽었습니다.
- ②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 ③ 법궤를 빼앗긴 소식을 듣고, 가장인 엘리가 뒤로 넘어져 죽었습니다.
- ④ 엘리의 며느리가 법궤와 시아버지, 남편의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3. 세상을 보면,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듯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온갖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하신다는 말씀이 들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심판은 무엇입니까?

4.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요 교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힘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누어보십시오.